

# “체전을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북도,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해단식 송하진 도지사 “헌신적인 모습에 박수·감사”

전북도는 지난 16일 오펜리스웨딩홀에서 지난날 전국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게 한 제90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자원봉사자 해단식을 했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김기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의 개회사와 송하진 도지사의 격려사, 송성환 도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성공체전의 주역인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을 치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자원봉사단체 참여 인증패 수여, 12일간 자원봉사자의 열정을 담은 활동영상 상영, 퍼포먼스, 레이저쇼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자

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자리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양대 체전에서의 또 하나의 선수, 3,800여명의 자원봉사자는 20여회의 기본교육과 4회의 리더교육, 그리고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 등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체전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밝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선수와 방문객들을 지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자원봉사의 역사와 전통을 빛낸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과 아낌없는 사랑에 아낌없

는 박수와 감사를 드리며, 내년 ‘전국소년체육대회’와 ‘2020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비롯해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 김기원 이사장은 “자원봉사자들은 늘 밝은 모습으로 묵묵히 일하고 계셔서 장하고 자랑스러웠다. 자원봉사자의 노고와 열정이 미래를 향한 밑거름이 되어 다시 한번 도약하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LX공사, 감사원 자체감사 심사평가 최고 ‘A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LX는 이번 평가로 지난해 B등급에서 평가등급이 상승했다. 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2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4개 분야에 대해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해 A~D 4개 등급으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LX는 예방·컨설팅 감사를 강화하고 자체감사기구 활동의 내실을 도모해 왔다. 한편 LX는 부패방지시책평가 2년 연속 1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 부패사건 발생 Zero 기관에 선정돼 왔다. /김영태 기자



“우리들의 댄스 실력 어때요?” 성인여성들의 꿈을 실현하는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지난 16일 학교 강당에서 개교 20주년 기념식 및 학습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댄스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 이낙연 총리, 은행장들에 “금융권 애로사항 듣고 싶다”

###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임용택 전북은행장 포함 15개 은행장과 오찬 은행장들,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보유 허용’ 등 다양한 요구 전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서울 총리공관에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과 15개 은행장들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두루 청취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태영 회장과 함께 위성호 신한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하인 국민은행장, 박진희 씨티은행장, 이동빈 수협은행장, 박명흠 대구은행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서원주 제주은행

장, 임용택 전북은행장, 황윤철 경남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은행장, 이용우 한국카카오은행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금융법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최창원 경제조정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 총리는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은 일부 관행적인 생각이나 관성적인 보도처럼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며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먼저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핀테크·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부가 금융혁신 지원특별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같은 법 제도의 정비 또는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혹시 더해야 할 것은 없는지 제안을 듣고 싶다”고 요청했다. 은행장들은 다양한 업계 애로사항과 개선요구를 전했다.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보유 허용 요청과 관련, 이 총리는 “4차산업혁명에 금융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김용범

부위원장에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금융기관 해외진출 정부 지원 요청에는 “적극 지원하겠다” 화답했다. 인터넷은행의 비식별화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규제 개선 요구에는 “적극 노력 중”, 금융소비자 핀테크·자산관리 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고 김 부위원장이 답했다. 은행장들은 “지자체 공공급고를 지방은행에 안내하고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도 지방은행과 거래할 수 있게 해 달라”고도 요청했고 이 총리는 “지자체와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이 지방은행을 일정부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적극 권고를 약속했다. /김영태 기자

## 상품에 예술을 입히다

### 전북문화관광재단, 도내 아트상품 43종 전주 서학아트스페이스 전시장서 소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도내 예술가들과 협업해 만든 아트상품 43종을 16일부터 21일까지 전주 서학아트스페이스 전시장에서 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임택준, 김도영, 이호철, 남민이 등 전라북도 유명작가와 신진작가들이 도예와 금속, 목공 작가들과 협업해 만든 차별화된 예술상품들을 개발해 전시판매했다. 전라북도 문화재단은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 지원사업’을 도내 순수예술작가의 지속적 창작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준비, 작품원작을 활용하여 아트상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통해 예술가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고자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처럼 예술가들이 원작에 대한 이용료를 받거나 업체에 제작을 위탁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상품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작가들이 예술 산업화의 주체가 됐다. 예술작품이 상품의 원형인 만큼,

조명, 문구류, 손수건, 가방 등 작품에 실용성까지 갖춘 43종의 예술작품과 생활용품이 결합된 작품을 6일간 전시한다. 이와 관련, 재단 임진아 팀장은 “첫 사업인 만큼 작가의 예술작품 활용 시 문화상품과의 차별성 확보를 개발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시도는 허용했기에 더 자유로운 아트상품들이 나올 수 있었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순수시각분야 예술가들이 활동무대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군산 GSC에서 열린 리빙아트&핸드메이드페어에서 아트상품을 최초 공개했으며, 현장에서 300만원 정도를 판매하는 등 페어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전시, 판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문화사업팀(063-230-7440~7443)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 일제 강제동원 문제 공동 대응 합의

### 아태평화 국제회의서 희생자 추모비 등 조성 유해 발굴 공동재단 설립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규탄과 진상조사, 추모비 건립 등 교류 협력사업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조직적인 복측과 달리 우리는 민간협회 차원의 협력이어서 협력이 구체화되려면 양 정부 간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사)아태평화교류협회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아태평화국제대회 토론 일정을 마친 뒤 공동선언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진상규명과 유골 봉환 등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발표문에 따라 참가국과 단체들은 일

본의 강제동원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일제가 강요한 인적·물적·정신적 수탈에 대한 진상조사와 실태 고발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또 각국의 실정에 맞게 강제동원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비, 조형물 등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희생자 유해 발굴 유골 봉환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재단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관련 국제대회와 토론회, 전시회 방문 등 교류 협력사업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북측 대표단 5명과 일본, 중국, 필리핀, 몽골,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등 해외 참가자 50여명, 국내 참가자 25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와 일본의 사과와 피해 보상, 그리고 이를 통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정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뉴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